

2025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—
에베소서

메시지 3

허물 가운데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음

성경: 엡 2:1-10

I. “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.” — 엡 2:1.

- A. 허물은 개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고 죄들은 악한 행동들이다.
- B.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— 엡 2:1.
 - 1. ‘죽어 있었습니다’는 우리 영의 죽음을 가리킨다. 이러한 죽음이 우리 온 존재에 퍼졌고,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도록 하였다.
 - 2.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.
 - a. 영적 죽음은 우리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다 — 딤후 4:22 상.
 - b. 우리의 몸과 혼 안에서 아무리 활동적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다.
 - 3.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“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,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” 살았다 — 엡 2:2.
 - 4. ‘이 세상’은 많은 시대로 이루어지는 사탄의 체계를 가리킨다 — 엡 4:14.
 - 5. 여기에서 ‘풍조(시대)’는 사탄의 체계의 한 부분, 한 단면, 한 방면, 현재와 현대의 유행을 가리키는데,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된다 — 엡 6:12.
- C. 이 ‘영’(엡 2:2)은 ‘공중의 권세’와 동격으로서, 사탄을 통치자로 삼은 집합적인 세력, 곧 모든 악한 천사 권세의 집합을 가리킨다.
- D. 우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을 때,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 아니라, 공중의 권세자, 곧 악한 영의 세력의 통치자인 사탄을 따라 살았다.
- E. 세 가지 악한 것 — 우리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, 우리 위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,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— 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 — 엡 2:2-3.

II. “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” — 엡 2:5 상.

- A. 죽은 이들을 우리에게 살리시는 것이 필요하다 — 엡 2:5 상.
 - 1.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표현한다.
 - 2. 하나님은 생명의 영(롬 8:2)을 통하여, 그리스도 자신(골 3:4)인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죽은 영 안에 분배하심으로써, 우리를 살리셨다.
 - 3.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,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다.
- B.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— 엡 2:5 하.
 - 1.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— 고후 12:9 상.
 - 2. 에베소서 2 장 5 절 하반절에서 ‘은혜’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거저 분배되신 하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,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킨다.
 - 3.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비참한 죽음의 위치에서 놀라운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받았다 — 고전 15:10.

- C. 우리는 죄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,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다.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아니라, 그분의 부활과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, 심지어 그분의 승천과 초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— 요 11:25, 20:17.
1. 이것이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,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바로 그분께서 죽은 죄인들에게 주신 뛰어난 구원이다 — 요 11:25, 엡 4:8-10.
 2. 이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, 과정을 거치신 신성한 삼일성의 결과인 교회가 산출되어, 그분을 표현하게 된다 — 고후 13:14.
- D. “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” — 엡 2:6.
1.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이다. 이 단계 후에 하나님은 죽음의 위치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.
 2.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신 것이다 — 엡 2:6.
 3. 하나님은 죽음의 위치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,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앉히셨다 — 엡 1:19-21, 2:6.
 4. 하늘들의 영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장 높은 위치이다 — 엡 2:6.
 - a.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원수보다 높은 위치로 구원하셨다 — 엡 2:6.
 - b. 여기 하늘의 분위기 안에서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특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— 엡 1:3, 20, 3:10, 6:12.
 5.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다 — 엡 2:6.
 - a.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루어졌고, 우리가 그분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— 요 20:17, 엡 4:8-10.
 - b.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,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실재를 깨닫고 체험한다.
 6. “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” — 엡 2:7.
 - a. ‘보여 주시기 위한 것’은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전시하시기 위한 것이다.
 - b. ‘여러 시대’는 천년 왕국 시대와 영원 미래이다.
 - c. 인자함은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.
 - d.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시다.
 7. “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.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” — 엡 2:10 상.
 - a.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.
 - b.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 교회만큼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없다 — 마 16:18, 엡 1:22, 3:10.
 - c.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 단 하나만이 그분의 걸작품인데 이 걸작품은 교회이다.
 - d. 하나님의 걸작품,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— 엡 1:23.